

# 매달 만나는 국가무형유산 '이리농악'

익산시, 10월까지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숨리소극장서 상설공연

익산시가 국가무형유산 '이리농악'을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예술 콘텐츠로 확장한다. 익산시는 지역 전통문화 계승과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이리농악' 상설공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리농악은 1985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으며 익산(옛 이리) 지역에서 전승돼 온 호남 우도농악의 한 갈래다. 상쇠의 부포놀이가 다양하고 장구 가락과 춤, 소고춤 기법과 진놀이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상설공연은 6일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7시, 익산 숨리문화의 숲 2층 숨리소극장에서 진행된다.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 시작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하다. 좌석은 70여 석으로 선착순 마감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공연은 판굿을 중심으로 비나리, 설장구, 사자춤 등 다양한 연희 요소를 담아 이리농악의 역동적인 매력을 선보인다. 특히 매회 다른 주제로 이리농악의 흐름과 의미를 단계적으로 풀어내고, 전승자의 해석과 시대적 변화까지 함께 담아내 전통예술의 현대적 의미도 전달할 예정이다. 1회 '이리농악을 마주보다'를 시작으로 △2회 '이리농악의 확장' △3회 '사람이 빛나는 이리농악' △4회 '흐름 속의 이리농악' △5회 '사람으로 완성되는 이리농악' △6회 '이리농악을 다시보다' 까지 전통 농악의 형식과 가치를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공연 후에는 상모돌리기 체험과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이리농악' 상설공연 포스터

##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8부 '굿패와 사랑' (5)

### 맹인 무당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외숙부 가족은 분가를 해서 외할머니 입안택과 명희만 살게 되었는데 입안택과 명희는 늘 같이 굿을 하러 다녔고, 큰 굿은 외숙부 가족도 동행했다. 명희가 20대 후반으로 넘어갈 무렵 외조모의 고향인 정읍 입안에서 자라고 외조모와는 먼 친척별 되는 배순옥이 무당 일을 배우기 위해 입안택의 신당에 들어왔다. 배순옥은 명희보다 다섯 살 아래였다. 앞을 못 보는 명희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지나고 사회가 안정되면서 예전에 했던 당산굿 등이 연행되었고 명희도 바쁘게 입안택을 따라다니며 굿을 했지만, 점점 국가적으로 굿하는 것을 미신이라 하여 폐기해야 할 악습으로 규정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담장을 없애는 조치까지 취하기 시작했는데, 이슬비에 옷 젖듯 사람들의 의식에서 차츰 굿행위는 미신이며 신문화에 맞지 않는 것으로 치부되면서 굿을 하지 않는 곳이 많아졌다.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면서 마을마다 있는 서낭당이 철거되고 장승을 잘라버리는 무지막한 행위들이 자행되었다. 그래도 부안 위도나 고창의 바닷가에서는 풍어제를 지냈고 몇몇 마을에서는 당산제를 거행하였다. 물론 액이 끼었다고 판단되면 무당을 불러 굿을 하는 가정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외조모 입안택은 당산제와 굿문화가 사라지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입안택은 굿이 점점 사라져 가도 매일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정갈하게 머리를 빗고 신당에 맑은 정안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굿이 자리를 잃어가는 상황에 마음의 병을 얻은 탓인지 입안택은 시름시름 앓았고, 걱정스런 눈으로 입안택은 명희를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수천 년을 우리와 함께한 굿이 이렇게 사라져서는 안된다. 마을의 공동유대의식을 단단하게 다지는 당산제가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야. 걸만 번지르르 하면 오래 못 간다.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하지. 정신이……." 결국 입안택은 기울어가는 해를 바라보듯 당산제가 하나둘 증발해가는 것을 바라보며 눈을 감고 말았다. 명희는 부모님과 동생들을 잃었을 때보다 더 슬프게 울었으며 세상이 무너지는 마음의 고통을 느꼈다. 명희는 배순옥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면서

맹인무당으로서 이름을 날렸다. 명희의 목소리는 영을 부르고 영을 다독이고 위로하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혼령의 뜻과 의지가 그대로 전해져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가 하면, 산 사람의 아픔을 달래고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는 의지를 북돋아 주는데 탁월했다. 명희는 앓은곳을 하러다니는 틈이 신령 있는 선운산 계곡을 찾아가 기도와 독경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강남준은 이십 대를 보내고 서른 가까이 되면서 나병이 몸속 깊이 박혀 얼굴은 물론 몸 전체가 일그러지고 오돌토돌 우렁쉥이처럼 피부가 돌아나 일반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을 정도로 몸 상태는 나빠졌다. 그나마 손과 발을 그러저럭 움직일 수 있어 돼지를 키우고 옥수수를 심거나 담배를 재배해서 일용할 양식을 마련하고 있었다. 삶을 영위하는데 그러저럭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것은 루이자 수녀와 같은 헌신적인 사람들의 헌금이 있어서였다. 남준은 루이자 수녀에게 거러걸고 흉금 없이 고민을 털어놓았고, 루이자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면 열 일 제쳐두고 달려가 루이자를 도왔다. 그런 남준을 루이자는 납다르게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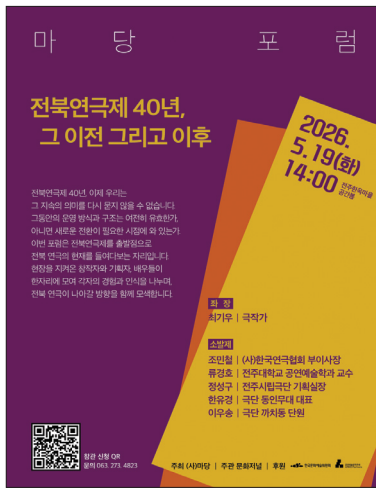
## '전북연극제' 40년 돌아보다

19일 전주 한옥마을 공간보서 포럼 개최

전북연극제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린다. 시간법인 마당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전주 한옥마을 공간보서에서 '전북연극제 40년, 그 이전 그리고 이후'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로 42회를 맞은 전북연극제의 운영 구조와 성과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공연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연극계를 이끌어온 창작자와 기획자, 배우들이 참여해 전북 연극이 직면한 과제와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포럼은 극작가 최기우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다섯 명의 발제자가 다양한 주제를 발표한다. 조민철 한국연극협회 부이사장은 연극제 운영 구조와 예산 문제를 짚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류경호 전주대학교 교수는 비평과 연구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기록과 축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어 정성구 전주시립극단 기획실장은 관객 감소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한유경 극단 동인무대 대표는 전주 중심의 제작 환경을 넘어선 지역 연극 생태계를 논의한다. 이우송 극단 캐치동 단원은 청년 연극인의 시각에서 전북 연극의 미래를 전망한다.

/오상근 기자



## 국립민속국악원, 5월 가정의 달 '이야기 보따리' 개최

국립민속국악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공연 시리즈 '이야기 보따리'를 오는 5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총 4회 선보인다. 이야기 보따리는 어린이와 가족 관객이 국악과 전통예술을 친근하게 만날 수 있도록 마련한 공연 시리즈로, 이번 공연에서는 장르가 다른 네 작품 △별이와 무지개다리 △오늘, 오늘이의 노래 △변검사자 탈출사건 △공주전 등이 차례로 무대에 오른다. 공연 전에는 부대행사 '웹툰 민속촌'을 운영, △지리산 미로탐험 △민속상점 △떡자랑을 찾아라 △날아라 고무신 △도전! 투호 달인,



국악원 누리집과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우 기자

## 군산대역사박물관, '어린이 세상' 전시

군산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어린이를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와 어린이의 삶을 역사적으로 조명하는 기획전시 '어린이 세상'을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 중이며, 오는 7월 19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시는 어린이가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어린이들의 삶과 문화, 그리고 권리의 형성과정을 통해 오늘날 어린이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시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를 거치며 어린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어린이들이 살아온 다양한 삶의 모습과 사회적 환경을 함께 조명한다. /군산=김민호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